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방이·목동 재건축단지 안전진단에 또 좌절?

올해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 시정 직접 관리... 안전진단 강화 D등급, 공기관 적정성 검토 통과해야

재건축 잠룡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부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당분간 약세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리 주체를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개선했다. 변경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민원이 빈번한 구청 대신 시청이 직접 관리해 안전진단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E등

급(30점 이하)을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31~55점)이면 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한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차까지 안전진단의 전 단계를 이미 최종 통과한 6단지과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9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목동아파트는 최근까지 6단지 재건축 확정 소식에 호기가 상승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번 규제가 호기 급락에는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사업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안전진단 문턱에서 좌절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6·17 대책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83.06㎡가 16억4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규제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 8일 17억5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중진공이 경남 진주에 있는 본사에서 6일 개최한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왼쪽 세번째부터)사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서울과기대 김기연 교수, 조정권 부이사장, 이현석 근로감독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노·사 전문가 모여 안전경영위 개최

안전 근로환경 조성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본사에서 2020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노·사 전문가로 꾸려진 안전경영위원회는 연간 중진공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참가 위원들은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시설 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진공은 이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안전경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 분야 심의 및 자문기구이다. 조정권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2명, 노동조합 추천 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진공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검토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내셔널지오 등 아웃도어 브랜드 연 90% 성장, 올해도 최대 실적

IPO 간담회

더네이처홀딩스 온라인채널 강화, 글로벌영역 확대 작년 2353억 매출... 성장세 유지중 신규브랜드 NFL 육성에 집중 계획



박영준 더네이처홀딩스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더네이처홀딩스

패션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더네이처홀딩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공모 시장 투자심리가 SK바이오팜으로 인해 한껏 달아오른 만큼 투자 수요가 기업공개(IPO) 후발주자에도 미칠 지 주목된다.

더네이처홀딩스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영역을 키워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더네이처홀딩스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패션 사업을 전개하는 라이프스타

일 브랜드 전문 업체다. 의류, 신발, 가방, 캐리어, 키즈 등 주요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패션 업계 주류였던 정통 아웃도어 사업이 정체됐을 때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포착해 도시형 캐주얼 디자인을 강조한 내셔널지오그래픽 의류를 출시했다. 그 결과 카이만 토포딩, 플리스 집업 등이 흥행하는 데 성공했다.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2017년부터 매출액이 연평균 84.4%씩 증가해 지난해엔 23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1분기에 매출액 499억원, 영업이익 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47.2%, 50.0% 증가한 수치다. 통상 패션 사업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실적이 월등한 경우가 많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무난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후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해외 시장을 현재의 홍콩, 대만에서 아시아 전역과 서구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콩의 경우 지난해 8월 K11 뮤제아(Musea)에 1호점을, 올해 3월 소고백화점에 2호점을 오픈했다. 대만에선 대만 최대 패션유통사 '모멘텀스포츠'와 손잡고 현지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두 지역 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미국과 유럽 진출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특히 신규 브랜드 NFL 육성에 집중할 생각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를 패밀리 브랜드로 확장하고, NFL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저축銀, 비대면 날개 달고 이용 편의성 증대

단기간내 여러 계좌 개설 규제 완화 비대면 신원 증명 간소화 개발 박차

비대면을 통한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금지된 현행 규제가 비대면에 한해서는 빠르면 이달 내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의 비대면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저축은행 비대면 서비스의 편의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제도'로 인한 거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에금 가입

에 한해 20일 내 신규 계좌 개설 금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3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 저축은행 계좌를 하나 열었을 경우 또 다른 저축은행의 계좌를 20일 이후에나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비대면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20일 규제를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저축은행의 업계 통합 앱(SB톡톡플러스)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중앙회와 개별적으로 앱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은 비대면 가입 전용계좌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계좌 개설 때마다 필요했던 번거로

운 실명 확인 절차도 생체 인증으로 간소화된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의 업계 통합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앞서 그간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한 개의 모바일 앱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 확인 증표 사본 제출, 타행 계좌 이체 인증, 휴대전화 본인 확인, 고객 정보 입력 등의 중복적인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현재는 10개 화면에서 확인 절차를 걸쳐 5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서비스가 시행되면 1개의 화면에서 5초 내로 처리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배민, 베트남 음식 배달사업도 '청신호'

국내 외식업체 해외진출 물꼬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이 베트남 음식 배달 사업에 안착하면서 국내 외식업체의 해외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공유 주방을 오픈해 매장 입점을 돕고, 현지식 자재 업체를 물색해주는 등 베트남 시장 특성을 공유하면서다.

배민은 지난해 6월 호치민에서 'BAEMIN'이란 이름으로 음식 배달 앱을 시작했다. BAEMIN 사업이 확장되면서 공유 주방 '배민키친'도 잇따라 선보였다. 배민키친은 조리시설을 갖

춘 여러 개의 주방을 한곳에 모은 공유 주방 서비스로 이곳을 이용하면 보증금, 임대료 같은 초기 투자비용 없이 외식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조스푸드의 경우, 우아한형제들 베트남 법인과 6개월간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호치민 1군 상권(한국인이나 관광객들보다 현지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상권)에 공유주방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조스푸드는 지난해 11월 론칭 후 하루 평균 주문수 150~300건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아피제도 배민키친에 입점하며 현지 매출이 늘고 있다.



배민 라이더가방. /우아한형제들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음식점들의 문의가 늘면서 배민키친도 거점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6월 호치민 2호점을 낸데 이어, 올 하반기 호치민 3·4호점, 하노이 1호점 오픈을 준비 중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